

靜觀齋 李端相의 생애와 사상 (2)*

- 대명의리론과 상수학을 중심으로 -

우경섭**

〈차 례〉

1. 머리말
2. 公義·私義 논쟁과 복수론
3. 화이론과 상수학
4. 맺음말

【국문초록】

이단상은 17세기 중반 주자학 중심의 조선 사상계에서 象數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문을 선도하여, 洛論과 北學으로 이어지는 서인 내 개방적·진보적 학풍의 단초를 이루었던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진출한 이래, 주자학에 근거하여 청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던 송시열 등 산림들과 뜻을 함께 하였다. 1664년(현종 5) 김만균의 출사 여부를 놓고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단상은 대청복수의 당위성을 주장한 송시열의 의견을 지지하며 서필원·김좌명 등 벗들과 절교하고 양주 東岡으로 낙향했다. 뒤이어 1666년(현종 7) 淸使가 파견되어 현종이 무릎 꿇고 사죄한 뒤 罰銀을 물게 된 이른바 벌금사, 그리고 1667년(현종 8) 제주도에 표류한 한인 林寅觀 일행을 청으로 압송한 사건이 일어나자, 대명의리를 저버린 조정의 조처를 비난하며 海槎詩를 남겼다. 동강 은거 이후 이단상은 元會運世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氣數의 운행에 따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바라본 소옹의 상수학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명청교체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맹자의 一治一亂說에 입각하여 청 치하의 현실을 잠시의 혼란기로 규정하고 중화문명의 보전을 통해 治世의 회복을 염원했던 송시열의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제어] 이단상(李端相),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 상수학(象數學), 송시열(宋時烈), 임인관(林寅觀), 중화(中華)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59230-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靜觀齋 李端相(1628~1669)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두 번째 글로, 이단상에 대한 지금까지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간 이단상은 17세기 중반 심성론과 예론 위주의 조선 사상계에서 象數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문을 선도한 학자로 평가받아 왔다. 그리고 송시열 등 산림이 주도하던 주자학 일변도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洛論과 北學으로 이어지는 서인 내 개방적·진보적 학풍의 단초를 이루었던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단상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통설과 다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초반 서울 지역 학인들의 전형적인 입신 경로와 마찬가지로, 이단상은 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문장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하지만 병자호란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했던 개인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효종의 조정에 출사하여 송시열 등 산림들과 뜻을 함께 하며 서인의 도학적 정통성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현종 초반 기해예송이 벌어지자 이단상은 송시열의 體而不正說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1663년(현종 4) 永寧殿 증수에 반대하며 종묘 제도의 근원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儀禮』와 『儀禮經傳通解』 등 古禮에 근거한 주자학의 예론에 충실했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주자가 개정한 『대학장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대 학설을 정리한 『大學集覽』을 편찬하고, 집안의 혼사 때 親迎을 고집했던 사실 등은 그의 학문과 사상이 17세기 중반 주자학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¹⁾

이상과 같은 논의에 뒤이어 이 글에서는 청 중심의 질서가 안정되어 가던 현종대 중반 이후의 사건들, 즉 김만균의 출사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公義·私義 논쟁’, 청의 강압으로 말미암은 현종의 罰金事 및 漢人 林寅觀 일행의 표류 사건 등을 계기로 표출된 이단상의 復讎論과 華夷論, 그리고

1) 이단상의 출생 이후 현종대 초반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경섭, 『靜觀齋 李端相의 생애와 사상』 (1): 병자호란 경험과 禮論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참조.

말년에 두드러진 상수학풍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2. 公義 · 私義 논쟁과 복수론

1663년(현종 4)의 영녕전 증수 논쟁이 마무리될 즈음, 이단상은 현종의 거듭된 부름을 사양하며 東湖書堂 등에 머물며 독서와 저술에 매진했다. 『四禮備要』, 『濂洛正音』, 『大學集覽』 등의 저술은 이 무렵 완성된 것이었다. 그리고 1664년(현종 5) 인천부사로 부임하여 5개월간 재직했는데, 이때 紫燕島(지금의 영종도)에 새로운 보장처를 정비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이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일거에 함락된 결과, 남한산성의 굴욕으로 귀결되었던 상황 속에서 주목할 만하다.

효종 연간부터 조정에서는 강화도를 대체할 만한 새 보장처를 모색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청과 맺은 강화조약에서 군사시설의 수리와 신설을 금지한 조항으로 인해, 보장처의 정비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었다. 다만 효종과 함께 북벌을 도모하던 몇몇 신하들이 호란 때 망가진 남한산성과 강화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강화도와 犄角之勢를 이루고 삼남 지역과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들을 조심스레 물색했다.²⁾ 그런데 현종 초까지도 그러한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 이단상 또한 인천부사로 재직하며 거기에 동참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연보에 전해진다.

선생은 천협의 요새인 자연도를 국가에서 돌보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

2) 『효종실록』 권14, 효종 6년 정월 17일(임인) “時上以中原久亂, 不可徒事皮幣, 偷安苟度, 欲修城鍊兵, 以爲自強之策, 別設左右別將, 分領禁旅, 親自試閱於禁中, 且置營將於三南, 命元斗杓主江華, 李厚源主安興, 李時昉主南漢山城, 洪命夏主紫燕島, 使之各自修繕儲峙. 每臨筵, 與斗杓等講論壽畫, 日昃不倦.”; 『송자대전』 권158, 『右議政李公神道碑銘』 “上嘗夜召公, 論江都形勢. 公曰, 江都四面, 古則沮洳, 賊船雖至, 不能登岸, 今乃不然, 沙土填塞, 便成強燥, 地方六十餘里, 無非受敵之地. 臣欲令訓局御營總戎三廳, 各築一城, 有事則三廳各以其兵入守, 又於要害處築墩臺, 使本島兵民分守, 而諸路舟師, 擺列津渡, 旗幟相望, 火鼓相應, 賊不敢進, 此所謂不戰而屈人者也. 然即今城役不可輕舉, 姑令預備諸具以待之. 且安興實江都門戶, 紫燕亦是藩蔽, 亦宜有措置之方. 大槩江都右接兩西, 左拱三南, 臣每論及保障, 必以江都爲第一也. 上曰, 卿言實合予意.”

하여 조정에 청하여 바야흐로 조처가 있으려 했는데, 갑자기 물러나게 되어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 본 고을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장소(保障之地)가 있었지만 건물이 퇴락하고 장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에 군영을 수리하고 설비를 크게 갖추려 할 때 갑자기 相避로 인해 물러나게 되었다.³⁾

청의 위협이 엄존하던 상황 아래 군사시설 정비에 관한 논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연도 및 인천부의 보장처 정비와 관련된 기록 또한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⁴⁾ 다만 숙종대 이단상을 제향한 인천 학산 서원의 사액제문에서 ‘臥薪嘗膽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문장은 그의 삶이 복벌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⁵⁾

한편 인천부사에서 물러날 즈음, 이단상은 이른바 ‘公義·私義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는 1663년 11월 홍문관 수찬 김만균이 병자호란 때 조모가 순절했다는 이유로 청사 영접을 회피하며 사직하자, 승지 서필원이 김만균을 파직하고 의금부에 넘겨 처벌할 것을 청하면서 시작되었다.⁶⁾ 그리고 1664년 1월 송시열은 ‘복수의 의리는 5대까지 유효하다’는 주자의 복수론을 인용해 김만균을 옹호하며, 김만균에 대한 처벌은 곧 대청복수를 근간으로 하는 世道에 대한 부정이라 주장했다.⁷⁾

3) 『정관재집』 연보 권2, 三十七年甲辰條 “先生以紫燕島實是天險，而國家曾不顧念爲慨然，請於朝廷，方有所措置，因其徑遞，事遂未就。…… 本府有保障之地，而官舍頽廢，器械無形，將欲改營修葺，大有設施，而遽以相避見遞。” 이단상의 인천부사 시절 행적 및 학산서원에 대해서는 우경섭, 『인천 鶴山書院과 李端相·李喜朝父子』,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참조.

4) 위 인용문에서 자연도와 함께 언급된 ‘인천부에 소재한 보장처’란 홍명하가 1653년(효종 4) 永宗鎭을 설치한 이후, 1656년(효종 7) 月尾島에 건립한 行宮과 함께 논의되었던 御用庫(仁川行宮)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5) 『정관재집』 권15, 『行狀』 “至是，上復登儒賢，日三晉接。公遂與之協心啓沃，一以成就君德爲己任，蓋非退食之暇，未嘗不在於上前，則誠所謂千載之會，而抑公仕優之志，殆亦源於是矣。”; 『靜觀齋集』 續集 卷10, 仁川鶴山書院賜額祭文-判決事李宜顯製 “寧王在宥，通啓昌辰，論思獻納，協襄惟寅，十載周旋，庶贊臥薪，世故遭廻，志倦簪紳。”

6)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4년 11월 6일(경오); 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한국학논총』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2.

7)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5년 1월 20일; 『송자대전』 권11, 『辭職仍以金萬均事引咎疏』; 권64, 『答李幼能-甲辰閏月六日-別紙』 “近事實無他端，只金學士引祖母讎爲說，且謂亡父之意如此，則其不聽猶可，至於下吏而罪之，則何以自解於萬世論議哉? …… 適聞當初玉堂有救正之筭，亟因人得見，則雖論其下吏之失，而亦不以金爲無罪矣。心竊慨然，以爲此義不明，則世道將至於何地?”

이에 대해 서필원은 부자·군신간 절대적 의리는 조손·형제 관계와 다르며, 복수의 범위에 차별이 없을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상소를 다시 올렸다. 그리고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로, 호란 때 형제가 죽었지만 나라일에 앞장섰던 홍명하·허적과 더불어 이일상을 거론했다.⁸⁾

저 세 신하들 모두 형제의 원수가 있지만 좋은 싫든 감히 (사직을) 청하지 않는 까닭은 일의 경중을 헤아리고 先公後私하는 뜻 때문이지, 어찌 작록에만 마음을 두어 염치를 저버리고, 우애하는 천성이 김만균보다 못해 그러겠습니까? 지금 나라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제는 거의 없으니, 마음과 힘을 모아 밤낮으로 노력해도 일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山林宿德이라는 사람(송시열)이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하니, 그의 말이 행해진다면 의리는 밝아질지언정 나라의 인제는 더욱 적어질까 염려됩니다. …… 오늘날 조정 신료들 모두 순절한 사람들의 손자요 증손자라면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녹봉을 먹으며 의기양양하다가, 청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도망갈 것이니, 수많은 사신 접대의 일을 임금 혼자 처리하게 할 것입니까?⁹⁾

본디 서필원은 이단상보다 14세나 많았지만 절친한 벗으로 지내던 사이였다. 1656년(효종 7) 이단상은 충청감사로 부임하는 서필원에게 ‘자만하지 말고 노여움을 다스릴 것(去矜制怒)’을 당부하는 전별시를 지어주었다.¹⁰⁾ 이 시는 그들의 돈독한 친분이 오래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단상이 서필원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1662년(현종

8) 『현종개수실록』 권10, 현종 5년 2월 5일(무술). 홍명하는 전사한 평안도관찰사 홍명구의 동생이고, 허적은 호조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다 순절한 호조정랑 許驛의 동생이었다.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 江都敗沒 참조.

9) 『六谷遺稿』 권3, 『辭咸鏡監司疏-甲辰正月三十日』 “彼三臣者皆有昆弟之讎, 而夷險一節, 不敢仰請者, 蓋出於酌量輕重, 先公後私之意, 豈皆徒心爵祿, 冒沒廉隅, 友愛之天, 不及於金萬均而然哉? 目今國事漸艱, 人材眇然, 雖使協心並力, 夙夜奔走, 猶恐其不濟, 而山林宿德之人, 遽爲此論, 臣恐此說若行, 義理愈明, 而國愈無人也. …… 若使今日朝臣皆其死事之孫曾, 則其將平居無事之時, 食祿揚揚, 聞有彼使, 輒皆走入, 其酬應百事, 獨使至尊當之乎?”

10) 『정관재집』 권3, 『別湖西伯徐載運』 “言能博取身無失, 畫必精思事可完, 功到去矜仍制怒, 一方施設也何難.”

3) 서필원이 홍문관 인사의 불공정을 문제삼아 대제학 김수항이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이단상은 김수항에게 편지를 보내, 서필원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분란을 일으켜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이 아님을 극구 변호했다. 그저 성격이 거칠고 고집스럽기 때문이라는 말이었다.¹¹⁾

그러던 중 송시열과 서필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자, 이단상은 호란 때 형제를 잃은 자신의 집안 내력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하여 간여하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서필원이 절친한 사이인 자신에게 시비를 물어오자 하룻밤을 보내며 상의한 뒤, 그의 견해가 밝지 못함을 탄식하고 독서에 힘을 쓸 것을 충고하는 시를 지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함경감사로 좌천된 서필원을 전별하는 시 가운데, 송나라寇準이 不學無術하다는 비판받은 말을 인용하여 그의 공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¹²⁾

그런데 서필원이 송시열을 반박하는 상소 중에 자신의 집안사를 언급하자, 이단상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형 이가상이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여파로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잃었던 이단상의 처지에서 본다면, 부자간의 복수 의리만 인정하고 조손·형제 등의 복수는 허락해서 안된다는 서필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명 멸망 이후 조선이 감당해야 할 중화문명 보전의 책임에 관하여, 이단상은 송시열의 세계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復讎와 雪恥는 보통 병칭하지 않으며, 원수(讎)와 치욕(辱) 또한 구별이 있습니다. 화란이 祖宗에 미친 것을 원수라 하며, 모욕이 자신에게 그친 것을 치욕이라 합니다. …… 일국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오랑개에 당한 것은 치욕이니 백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차원에서 말하고 춘추의

11) 『정관재집』 권11, 『答金久之-壬寅』“自有邇令此事之後, 衆謗喧起, 不勝其紛紜. 邇之所爲, 泛然觀之, 則誠宜有或者之疑, 而然兄亦熟知此友其爲人, 豈是挾私憾攻親友, 助異論附戚里之人哉? …… 然此令前後事, 皆是性執, 且或誤入而然.”

12) 『정관재집』 권3, 『寄載運』“一宵聯枕話深情, 自歎終乖見處明, 已覺聖狂同此性, 從知仕止等浮名. 心懸報主慙無長, 意切修身愧未誠, 勝讀十年書浪語, 願君珍重勸前程.”; 『花山路上別邇令北伯之行』“大處差堪讓, 麤時政可攻, 官閑勤有讚, 莫使戒萊公.”

대의로써 판단컨대, 우리가 오랑캐에 당한 것은 원수이지 단순한 치욕이 아니며, 백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天朝는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갑신년(1644) 송정제의 화란이 오랑캐 때문이니, 저들은 우리 부모의 원수입니다. …… 갑신년 이전이 그저 치욕이었다면, 갑신년 이후는 원수입니다.¹³⁾

명나라 멸망 이후 청에 대한 조선의 적개심은 단순히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갚는 차원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천하질서의 차원에서 마땅히 간직해야 할 도덕적 사명이라는 말이었다. 이처럼 중화주의의 관점에서 청에 대한 복수의 필연성을 전제로 삼은 이단상에게 논쟁의 핵심은 부자·조손·형제 등 개인적 관계에 따른 복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였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이단상은 조정의 논쟁이 일단락되었던 1664년(현종 5) 10월 그의 생애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應旨論時事疏』를 올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송시열이 주장한 복수의 대의를 옹호하며, 서필원의 주장이 ‘학문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無識), 도리에 어긋났다(駭悖)’는 취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서필원에 대한 세간의 비판 역시 그의 충정을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렇다고 오늘날 모든 일을 한결같이 禮經에 적힌 대로 행하려면, 비슷하나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고금의 마땅함이 다르고 시대의 흐름이 같지 않으니, 그 사이에 참작하여 헤아릴 길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서필원이 조손 관계로 단정한 것은 진실로 無識한 것이었지만, 이른바 참작하여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요지는 전혀 소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칠고 사나운 말로 송시

13) 『정관재집』 속집 권2, 『上尤齋』④ “復讎雪恥, 例不同稱並言, 而讎恥之間, 亦自有別. 禍及祖宗者, 是謂讎也, 辱止一身者, 是謂恥也. …… 一國言之, 則我之於虜, 是恥也, 無百世必報之讎也. 以天下言之, 以春秋之大義斷之, 則我之於虜, 是讎也, 不但恥也, 而有百世必報之義, 何以言之? 天朝我父母國也, 甲申天王之禍由於虜, 則是我父母之讎也. …… 是以甲申以前, 則只是恥也, 甲申以後, 則乃是讎也.”

14) 『정관재집』 속집 권2, 『上尤齋』② “今此復讎之論, 實係君臣父子祖孫昆弟之大倫, 而抑且爲東土數千里億萬世, 扶植綱常之大義理大議論.”; 『정관재집』 권11, 『答金久之』⑤ “大槩今日此論所爭, 非是讎之報不報, 只是凡有讎之之義者, 未免以彼正朔書官教之朝以仕, 而於其間與他人相接與不相接而已.”

열을 조롱하고 모욕한 일은 대단히 駭悖하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간 서필원을 비판한 자들도 공격이 너무 심하니,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그를 승복시키지 못했습니다.¹⁵⁾

그리고 송시열이 출사를 꺼리는 이유가 기해예송 때 윤선도와 더불어 김좌명·김우명 형제와의 혐원 때문이라 설명하며, 송시열의 그런 처지를 헤아려 등용할 방도를 마련하라고 현종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좌명 집안의 隧道事를 거론했는데, 이는 효종 말년 헌납 민유중이 김육의 무덤에 隧道를 참용한 일로 그 아들 김좌명을 처벌하고 개장을 청했던 일이었다.¹⁶⁾ 이후 김좌명·김우명 형제가 민유중의 배후 인물이 송시열이라 여겨 원망하므로 송시열이 조정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제가 國舅(김우명)의 말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병조판서 김좌명은 민유중의 주장이 송시열에서 비롯되었다 여겼고, 또한 송시열의 복제 논의를 잘못이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과 김좌명은 어려서부터 친하여 우정이 얹지 않기에, 이번 두 가지 일(수도사와 복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얼굴을 맞대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 김좌명의 뜻이 그와 같다면 국구의 뜻도 반드시 다르지 않을 것이니(亦必無異), 송시열이 더욱 이 때문에 편치 못하다고 들은 듯합니다.¹⁷⁾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병조판서 김좌명과 청풍부원군 김우명 형제는 ‘淸名之士를 자처하는 이단상이 벗을 속이고 팔아먹었다(賣友)’고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 자신들은 그저 송시열과 친하지 않을 뿐 별다른 혐원이 없는데,

15) 『정관재집』 권5, 『應旨論時事疏』 “至若因此, 必欲一依禮經所載而行之於今日, 則亦不無似同而異者, 古今異宜, 時勢不同, 其間豈可無斟酌之道也. 以此言之, 則必遠之斷自祖孫者, 果爲無識, 而其所謂不可無斟酌量者, 則主意所在, 不可謂全無所見, 然其以粗厲之語, 肆加譏侮於時烈者, 極涉駭悖, 烏得無罪, 而前後之攻必遠者, 攻之太深, 亦未能得其情而使自愧服.”

16) 『효종실록』 권21, 효종 10년 4월 8일(무술).

17) 『정관재집』 권5, 『應旨論時事疏』 “臣雖未聞國舅之言, 兵曹判書金佐明, 則以維重此論爲出於時烈, 佐明且嘗以時烈服制之論爲不是. 臣與佐明, 自少相親, 情誼不淺, 曾以此兩事, 與佐明面論者, 亦且屢矣. …… 佐明之意如此, 則國舅之意, 亦必無異, 似聞時烈以此不得自安云.”

친구 이단상이 국정 경색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복제와 수도 문제를 왜곡했다는 내용이었다.¹⁸⁾

뒤이어 서필원 역시 자신을 가리켜 無識·駭悖하다는 이단상의 지적에 대하여, 부자와 조손 관계를 나누어 본 자신의 견해가 무식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구분해야 유식하게 되는지 반문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송시열을 駭悖하다고 한 표현 역시 公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명하고, 이단상의 말대로라면 훗날 다시 국난이 닥쳤을 때 조정 신하들 모두 집안의 사사로운 의리를 앞세울 것이니, 그의 주장은 미래를 그르칠 망언이라 극언했다.¹⁹⁾

송시열의 복수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오랜 친구였던 김좌명과 서필원으로 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게 된 이단상은 대단히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자신이 수도 문제를 언급한 까닭은 세상이 다 아는 송시열과 김좌명·김우명 형제간의 불화를 임금만 모르고 있기에 그 실상을 아뢰는 것뿐이라 해명했다. 그리고 부자와 조손 관계의 차별성을 내세운 서필원의 주장을 무식하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복수의 의리에 차등이 없을 수 없다는 그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이며, 송시열에 대한 駭悖를 지적한 의도 역시 그의 본심이 결코 송시열을 무함하는 데 있지 않음을 변호하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²⁰⁾

사실 이단상의 입장은 송시열과 차이가 있었다. 송시열의 5대복수론은 부자뿐 아니라 5대의 조손 관계 더 나아가 형제와 종형제·봉우에 이르기까지, 청에 대한 복수의 당위성은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됨을 대의의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단상은 벼슬이 없는 경우 송시열의 주장에 따를 수 있지만, 조정에서 녹을 받는 관직자라면 복수의 범위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²¹⁾ 다만 부자와 조손 관계를 칼로 끊듯 나눌

18)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 5년 11월 8일(을미); 『歸溪遺稿』 卷上, 『因李端相疏陳情請退疏-甲辰十一月』

19)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 5년 12월 11일(무진); 『六谷遺稿』 권3, 『辭黃海監司疏』 “端相以斷自祖孫, 爲臣無識之案, 未知端相之心, 斷自何親然後方得爲有識乎? …… 端相又謂臣爲譏侮儒賢殊極駭悖, 若使臣之本心出於譏侮, 則雖其罪目十倍於駭悖, 固當甘受. 今臣之心, 出於辨論, 非譏侮也. 觀人之法, 貴觀其心, 是非之分, 只在於公私義利. …… 假令日後有奔波顛倒之患, 凡食祿之徒, 苟有祖孫昆弟不相保之勢, 則雖欲爲羈勒從君之事, 恐畏人言, 必將有迴回前却之心, 然則端相此論, 非惟誤今日, 亦以誤後日, 豈不重可懼哉?”

20) 『현종개수실록』 권12, 현종 5년 11월 13일(경자); 『정관재집』 권5, 『辨徐必遠等詆斥疏』

수 없을 뿐, 기본적으로 복수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필원과 마찬가지로였다.

부모와 조부모의 원수라면 진실로 (칭나라 사신을) 만나서 안되며,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저도 비록 상세히 알지 못하겠습시다만, 그밖에는 반드시 경중을 헤아려 제한을 두어야 하니, 제 뜻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北伯(서필원)의 상소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대뜸 감히 부모와 조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심지어 다른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이는 지극히 무식한 말이라 것처럼 공론의 배척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선에서 제한을 두고자 한 뜻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尤丈(송시열)의 상소가 진실로 정론이겠지만, 만약 ‘무릇 복수할 의리가 있으면서 오늘날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로는 5대조부터 아래로는 종형제와 봉우의 원수까지 전혀 차별이 없으므로, 조정에 나가 청인을 접견하고 저들의 땅에 사신으로 가며 저들과 관련된 일에 일체 간여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옳다고 여기지 못하겠습니다.²²⁾

그런데 이같은 해명은 서인 내부에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익렴 등이 이단상의 주장을 가리켜 서필원을 옹호하며 송시열을 비난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이단상은 송시열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대감의 본의는 오늘날 사대부 중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로 고조와 증조부터 아래로 종형제와 친구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21) 『정관재집』 권11, 『答金久之』¹⁰⁾ “有若祖父母, 則不入於三綱五倫之中, 此則果極無識. 然其所謂凡有讎之之義者, 上自五代祖, 下至朋友之讎, 不可都無差別, 雖不知當限於何親之讎, 而不可無定制之意, 則不可謂之非也.”

22) 『정관재집』 권11, 『答金久之』¹⁰⁾ “父母祖父母之讎, 則固不可出見, 昆弟之讎, 則弟亦雖不能詳知, 而此外則斷不可無斟酌輕重有所限制之理, 弟意不過如此矣. 北伯疏語, 只以渠之拳算, 遽敢截斷於父母祖父母之間, 至謂之他不與焉者, 誠極無識, 宜乎公議之斥之如此, 然其欲有一處限制之意, 則不可全非. 尤丈疏語, 固是正論, 而然若謂之凡有讎之之義, 而今日立朝以仕者, 上自五代祖, 下至從昆弟朋友之讎, 都無差別, 皆不可出見彼人而入往彼地, 與彼事相涉云爾, 則弟不敢以爲是也.”

비록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더라도 모두 저들을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실로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감의 한마디 말은 응당 온 세상의 준칙이 됩니다. 대감의 본의가 과연 이와 같다면, 이 시대의 사대부들 중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만 피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원수를 잊고 예를 잃은 것으로 귀결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²³⁾

이에 대해 송시열은 이단상의 본뜻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보내왔다.²⁴⁾ 그러나 이단상은 약 1년간의 논쟁 과정에서 서필원·김좌명 등 오랜 친구들과 절교하게 되었고, 산림에서는 서필원을 감싸며 송시열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곤혹스러움이야말로 ‘대대로 벼슬한 가문에서 태어나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 온 그로 하여금 은거를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다.²⁵⁾

얼마 뒤 이단상은 일부터 그랬던 듯, 月課를 짓지 않아 파직되었다. 조정에서는 홍명하와 조복양 그리고 잠시 올라온 송준길이 그를 정연에 남겨둘 것을 거듭 간청하여 부응교에 제수되었지만,²⁶⁾ 다음과 같은 사직소를 올렸다.

무릇 사람이 처신하는 데 염치가 중요하니, 염치를 다 잃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없습니다. 신이 그때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여 금기를 많이 건드렸으니, 온갖 의혹이 일제히 제기되고 여러 사람의 분노가 번갈아 이르는 것은 이치상 실로 당연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몇 구절의 비난은 사대부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차마 듣지 못할 말이니, 지금 생각해도 魂骨조차 놀랄 지경입니다. …… 이것이 신이 이른바 질병이 위독한 것 이외에 더더욱 맑은 조정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²⁷⁾

23) 『정관재집』 권9, 『答宋尤齋-甲辰』 “一隊論議遂謂, 大監本意以爲今世士大夫遭此者, 上自高曾祖, 下至從兄弟朋友之讎, 雖仕於朝, 而皆不可見彼云. 侍生於此果不無所疑. 大監一言, 當爲舉世之則. 大監本意果若如此, 則一世士大夫之遭此而不避者, 皆不免爲忘讎失禮之歸.”

24) 『송자대전』 권64, 『答李幼能-乙巳雙扇日』

25) 『정관재집』 권4, 『辭執義疏-甲辰』 “臣以喬木之臣, 發身科白, 平生志願, 只在於祿仕.”; 권6, 『辭執義疏-丙午』 “臣非山林遐邇之士也, 本以世祿之臣.”

26)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8월 12일(을축); 8월 27일(경진).

그리고 허둥지둥 도성을 떠나 친구이자 사돈인 이정기의 거처가 있던 廣陵에 잠시 머문 뒤, 1665년(현종 6) 9월 선영이 있던 양주의 형 이일상의 농막에 우거하며 隱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 화이론과 상수학

1665년 양주로 낙향한 뒤 1669년(현종 10)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단상은 4년간 東岡 靈芝洞에 靜觀齋를 짓고 은거했다. 그동안에도 조정의 천거가 거듭되었지만, ‘문장을 자부하며 출세에 뜻을 두던 젊은 시절 구습을 한순간에 버리고 성리학에 전심하며’, 각처에서 찾아온 제자들과 침식을 잇고 강학에 전념했다.²⁸⁾

그렇다고 세사사에 관심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1666년(현종 7) 3월 영남 유생 柳世哲 등이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²⁹⁾ 그 내용은 송시열이 효종을 첩의 자식으로 비하했다는 윤선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효종의 국상이 끝난 뒤 잠잠해진 상복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당사자인 송시열 등이 이 일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데 비해, 유독 이단상은 도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간주했다.³⁰⁾ 그리고 관학 유생 홍득우 및 홍문관원 이민서·이단하 등 서인계 관료들이 올린 유세철에 대한 반박 상소들 역시 時制와 國制의 구분에 얽매어 古禮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³¹⁾ 아울러 기해

27) 『정관재집』 권6, 『辭副應教疏-乙巳』 “凡人行己, 廉恥爲重, 廉恥都喪, 則人不得爲人矣. 臣於其時妄言至此, 多觸忌諱, 則群疑之齊起, 衆怒之交至, 理固宜然, 臣不爲怪, 而第其中數句醜詆之語, 誠有士夫所不忍發所不忍聞者, 至今思之, 魂骨猶驚. …… 此臣所謂疾病危篤之外, 尤不可冒進清朝者也.”

28) 『정관재집』 별집 권4, 『遺事-子喜朝』 “少時頗喜詩酒, 以文章詞翰自任, 志且高亢. 已而覺其誤, 遂一去舊習純也. 於是專心性理之學, 孜孜矻矻, 夜以繼日.”

29) 『현종개수실록』 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3월 25일(을사); 4월 19일(기사).

30) 『송자대전』 권31, 『答宋明甫』④ “幼能報以如武侯營壘, 非華宗浪戰之比, 始以爲此不過嶺人與京中若干輩相應而已, 則能言似太過矣, 今而後始驗矣. 大抵能言無不驗, 豈其明悟所致耶?”

31) 『정관재집』 권8, 『答永安兄』① “未知此兩作果是誰製, 而非但可痛辨處, 不得十分明白說破, 至其主意措語, 顯有全歸重於時制國制者, 如此則雖果有益於一時取勝, 而恐非尤丈本意.”; 『정관재집』 별집

예송 때부터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사촌동생 박세채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책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보건대, 오늘날 이 주장(기년설)을 두둔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尤丈(송시열)의 논의를 범범하게 옳다고 할 뿐,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 본뜻을 잃은 채 헛된 말로 대처한다면, 이 어찌 사문의 흥망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³²⁾

이단상의 입장은 단순히 1년 혹은 3년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古禮에 입각한 송시열의 체이부정설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고, 이후 경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윤휴·허목·윤선도·김수홍의 예설을 상세히 변화하는 편지를 홍명하에게 보냈다.³³⁾

한편 조선에 대한 청의 강압이 지속되던 가운데, 1666년과 1667년 중대한 외교적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³⁴⁾ 먼저 1666년(현종 7) 7월에 청 사신이 파견되어 조선의 염초 밀매 시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탈주한 안추원 사건을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사들은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홍명하의 책임을 물어 처형을 요구했고, 현종이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한 뒤 5천 냥의 罰銀을 물고 무미할 수 있었다. 삼전도 이후 또다시 국왕이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일이자, 국왕이 속죄의 명목으로 벌금을 물게 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단상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어야 하는 의리(主辱臣死)’를 통탄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지엽적·일시적 액운이 아님을 우려하며 天道의 보편성과 항상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었다.³⁵⁾

권3, 『與閔持叔一丙午』 “嶺事處置, 果極痛快, 而但恨乘有裕之機, 不能以禮服渠輩之心, 此爲可歎, 奈何奈何? 太學玉堂疏筭, 種種做錯, 若無湖西之疏, 則其何能救其敗闕耶?”

32) 『정관제집』 권12, 『答朴和叔一丙午』 “槩觀今日之右此論者, 非不爲多, 而然不過泛是尤丈之論而已, 實不知所以是之者矣. …… 若或失其本旨, 妄發以對, 則此豈不係斯文之興喪耶?”

33) 『정관제집』 속집 권5, 『與洪相國』

34) 1667년 林寅觀 사건을 전후한 조정 관계의 추이 및 조선 조정과 지식인들의 대응에 관해서는 우경섭, 『명정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 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대사학회, 2019 참조.

35) 『정관제집』 별집 권2, 『答永安兄』 “伏承下書, 讀至上離席叩頭一款, 則不覺氣涌如山, 直欲發聲痛

뒤이어 1667년(현종 8) 5월에는 南明의 백성을 자처하는 漢人 林寅觀 등 95명이 조선에 표류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대만에 웅거하던 鄭經 휘하의 官商들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중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 상륙했던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남명 永曆帝의 책력을 내보이며 중국 남부에 정성공·정경 부자가 주도하는 항청세력이 건재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막부에 請兵하여 청을 협공하려는 계획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나가사키로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대청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조정은 곧 그들을 북경으로 압송했고, 나중에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청이 알아채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명나라 유민을 압송했던 이때의 일은 조정이 앞장서서 중화를 저버리고 이적의 편에 섰던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청에 사대하게 되었던 남한산성의 항복, 그리고 명군의 東江鎭이 있던 椴島 공격에 동참하고 산해관 함락의 분수령이 되었던 錦州 전투에 화기수를 파병했던 일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인식된 것이었다.³⁶⁾

당시 조정에서는 표류 사실을 보고받음과 동시에 임인관 일행을 청으로 보낼 것을 결정했다. 특히 현종을 중심으로 우의정 정치화와 병조판서 김좌명이 압송 논의를 주도했고, 대신들 역시 그들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호조판서로 그 자리에 참여했던, 김상헌의 손자 김수홍마저 ‘약소국의 형편상 압송은 불가피하며, 천하 사람들도 우리 처지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 합리화했다.

당시 이조참판 조복양을 통해 조정 동향을 파악하던 이단상은 임인관 일행의 존재를 통해 명나라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인들의 압송에 반대하며, 그들을 일단 제주도에 숨겨놓고 후일을 도모할 것을 조정의 동료들에게 당부했다.³⁷⁾ 그러나 압송이 결정되었다는 소

哭, 此豈但爲主辱臣死而已也. 諸臣罪律, 初以極罪論斷, 今止於此者, 聞來亦不覺驚呼起立, 虜雖獐頑, 亦何至此? 此實非兩相一身之厄, 且非國家一時之憂而已, 前頭事, 何可言?”

36) 『研經齋全集』 권32, 『尊周彙編條議』 “南漢之講和也, 椴島之助兵也, 錦州之赴戰也, 林寅觀等之入燕也, 並不得已也, 不忍道也.”

37) 『정관제집』 권14, 『奉寄海西金按使-字亨-序』 “今天地長夜, 而閩中一隅, 猶不爲腥羶之區, 則或者天意不欲喪斯文矣.”; 『정관제집』 별집 권2, 『答趙參判-丁未』 “大槩今此漂人, 不必急急縛來, 姑留島中, 置之相忘之域, 徐觀前頭而處之似未晚. 設令他日有問, 豈無可答之辭耶?”

식을 들은 뒤, 비통한 심경을 아래와 같이 토로했다.

조정에서 제주도 한인들을 복송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래, 외진 산골에 홀로 앉아 취한 듯 미친 듯 지내고 있습니다. 寧陵의 松柏을 우러르고 石室의 雲樹를 돌아보며 소리를 삼키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번에 다시 보내주신 편지가 저를 통곡하게 만드니, 문득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중국에 군사를 보내 황조를 도와 오랑캐를 쓸어내고 신종 황제의 큰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지언정, 어찌 도리어 이런 일을 저질러 스스로 인륜을 저버리고 천하의 큰 기회를 망쳐야 하겠습니까? ……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항복과 가도·금주의 일은 핑계거리라도 있지만, 오늘날 이 일은 입이 석 자라도 어떻게 해명하여 천지 사이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해로 따지더라도, 한갓 눈앞의 횡포를 두려워하여 장차 천자의 군대에 의해 입금이 바뀌는 일을 염려하지 않음은 원대하고 장구한 생각이라 할 수 없습니다.³⁸⁾

이단상은 이번의 한인 압송이 청의 강압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가도·금주의 파병과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한탄하며, 김상헌의 척화론과 효종의 북벌대의를 저버린 조처라 비판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에는 화이분별의 도덕적 판단뿐 아니라 훗날 명이 부활할 경우 보복을 면치 못하리라는 현실적 우려까지 담겨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화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이때의 결정이 ‘만고의 鈇鉞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극언하는 가운데 국가와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으며, 유교국가로서 조선왕조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기했다.³⁹⁾ 그리고 다음

38) 『정관재집』 권10, 「答趙參判-復陽-丁未」 “自開朝家將以漢軍人送北之報, 獨坐窮山, 如醉如狂, 仰瞻寧陵松柏, 回顧石室雲樹, 未嘗不吞聲飲泣而已. 今又承此下示, 幾令人痛哭, 直欲溘然無知也. …… 我東之於今日, 縱不能觀兵中國, 協贊皇朝, 一掃腥穢, 以報神宗皇帝之大德, 其何忍反爲此舉, 自喪乘彝之天, 以壞天下之大機也哉? …… 丙丁南漢假錦之事, 則猶可有諉, 而今日此舉, 則雖有喙三尺, 其何以自解而更立於天壤間耶? 雖以利害言之, 徒畏目前之暴, 不念他日六師之移, 亦不可謂遠思而長慮也.”

39) 『정관재집』 권12, 「答朴和叔」^④ “古今天下, 寧有是事, 忍爲此舉而不亡何爲, 不死何爲耶?”; 「答朴和叔」^⑤ “今若講張此等說話, 欲免萬古斧鉞, 其可得乎?”

과 같은 시를 남겼다.

남쪽 멀리 뗏목 타고 바다를 건너오니, 붉은 구름 한 떨기 해 옆에서 이는구나.
千秋의 大義를 이는 사람 없으니, 石室山 앞에서 통곡하고 돌아오네.⁴⁰⁾

훗날 海槎詩라 칭해지는 이 시는 송시열의 답가와 짝을 이루어 널리 회자되었다. 특히 ‘석실에서 통곡한다’는 구절은 조정의 압송 결정에 동조했던 김수흥에 대한 비난이라 해석되기도 했지만, 이단상의 본의는 아니었던 듯하다.⁴¹⁾

임인관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단상은 중화의 회복을 고대하며 남명의 소문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⁴²⁾ 더구나 1668년은 명나라 건국 3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는 당시의 운세를 풀이하며 명나라의 명맥이 단절되어 가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지금 천하가 긴 밤이 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에, 元會運世의 수를 가지고 治亂興亡의 자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난세와 치세가 서로 이어짐은 理數의 일정한 법칙이니, 우리 태조 고황제의 빛나는 만세의 왕업이 어찌 여기에서 끝날 뿐이겠습니까? …… 올해 戊申年은 우리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즉위한 해이자, 5갑자가 지나 꼭 300년이 되는 해이자, 더구나 그 운세년의 궤효가 당시와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갑신년(1644) 송정제의 화가 ‘한나라 예제와 평제의 시대가 中天에 해당한다는 말에 부합하여 여전히 後天의 수가 남아 있어 광무제의 중흥기에 대응할지, 아니면 송나라가 멸쳐 일어나지 못한 것과 같지 않을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⁴³⁾

40) 『정관재집』 권3, 『有感偶吟寄尤齋』“南極浮槎海上來, 紅雲一朵日邊開. 千秋大義無人識, 石室山前痛哭廻.”

41) 『정관재집』 별집 권2, 『與金起之』“向來兄之意外受謗, 尋常痛之, 豈料人言反以弟謂以詩句識兄耶? …… 第弟不作詩者已有年, 秋間偶過石室, 適有所感, 率爾有此作, 還家適答久台書, 及於紙尾, 不知因何傳出, 以其有石室兩字故, 傳之者任意傳會, 至謂之識兄, 悔歎奈何?”

42) 『정관재집』 권12, 『答朴和叔』²⁴⁾ “大明子孫, 有立國於西方, 以平康爲年號者, 玉門關外諸夷皆服從, 蒙古全部亦皆歸順云, 此語想已聞之耶? …… 此語極祕, 君獨見之, 切勿煩也. 大槩皇家之裔, 並起西南, 天下事從可知矣. 不知此時尤翁力量才具, 果能辦得此事否也.”

43) 『정관재집』 권14, 『寄濟州牧使李侯-填-序』“今天下之爲長夜者, 已數十年而然, 竊嘗以元會運世之數, 考治亂興亡之迹者審矣. 否泰相承, 理數之常也. 惟我太祖高皇帝煌煌萬世之業, 豈終於此而已耶? …… 今者太歲在戊申, 卽我太祖高皇帝卽阼之年, 而甲子已五周, 恰是三百年矣. 況其運世年之卦爻,

元會運世란 소옹이 장구한 우주의 변천과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은 12와 30을 주기로 삼아 숫자의 무한한 반복과 순환에 따라 운행된다.⁴⁴⁾ 이단상은 소옹의 이같은 역사관에 근거하여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직면한 시대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다. 오랑캐 청조 치하에 놓인 당시의 時運이 광무제의 출현을 기다리던 前漢 말기처럼 잠시의 어둠에 불과할까? 아니면 주자가 『涪灘詩』에서 우려했듯, 중화와 이적이 뒤바뀐 장기적 암흑시대의 초입일까? 하지만 이단상은 자신의 시대가 둘 중 어느 쪽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저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심정을 토로하며, 氣數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직면한 불가해한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 유학자는 理를 말하지 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理가 존재한 뒤에야 氣가 있고, 氣가 존재한 뒤에야 數가 있습니다. 邵子は ‘오늘날 數를 말하는 자는 數를 가지고 術로 들어가지만, 數를 가지고 理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의 운명을) 오직 數에만 맡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음도 분명합니다.⁴⁵⁾

이처럼 氣數를 가지고 천지의 운행과 더불어 인간 세상을 설명하려는 상수학이야말로 은거 이후 이단상의 학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 조선이 처한 엄중한 정세 속에서 그의 상수학이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수학에 대한 그의 사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저술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문집에 실린 단편적인 글들을 통해 정자의 『易傳』과 주자의 『本義』를 비

適有與之相協者，則安知甲申天王之禍，不爲漢之哀平之世，合於中天之語，而尚有後天之數，可以應光武中興之期，不比於宋室之不振者耶?”

44) 소옹의 계산에 따르면, 1元은 12回, 360運, 4320世, 129,600年이다.

45) 『정관재집』 권14, 『泰寄海西金按使-宇享-序』, “吾儒言理不言數，而有理而後有氣，有氣而後有數。邵子嘗曰，今之言數者，以數入于術，須以數入于理云。以此言之，則其不可只諉之於數，而不得不信也，亦明矣。”

못하여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소옹의 『황극경세서』, 그리고 주자 상수역을 계승한 송말원초 鮑雲龍의 『天原發微』를 토대로 역학과 상수의 세계에 경도되었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옹 상수학의 계승이야말로 그가 추구한 학문의 중심이었음은 말년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었지만 병 때문에 사망으로 두루 다니며 스승과 벗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40세가 되어서는 조정에서 힘을 펼 수 없기에 관직에서 물러나 영지산에 은거했다. 날마다 邵子의 『황극경세서』를 붙잡고, 圓圖로써 천지와 역대의 성쇠를 관찰하고 方圖로써 동물과 식물과 운용되는 사물을 살폈는데, 제왕의 치란과 흥망의 운수에 깊이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옛날을 살피고 지금을 아파하며, 성대했던 주나라의 법도를 그리워했다. 산에 올라 榛苓의 시를 읊고 강가에서 朝宗의 탄식을 발하며, 천지를 바라보며 감개하고 방황하며 머뭇거리임이 여러 해였다.⁴⁶⁾

위의 글에 따르면, 이단상이 본격적으로 상수학에 몰두하게 된 것은 1665년 동강에 은거한 뒤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소옹 상수학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료 시절 주로 주자학의 심성론을 집약한 『심경』과 더불어 『대학』 탐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특히 주자의 『대학장구』 중 格物致知 補亡章에 대한 해명에 집중했음은 그가 심성론 위주의 주자학적 학문 방법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그런데 은거 이후 이단상이 인간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학문 방법에서 다소 벗어나 상수학에 침잠하게 된 까닭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듯 고금의 흥망성쇠를 살피는 가운데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자신의 시대를 통찰하며, 주나라로 상징되는 중화문명의 회복을 기대하려는 역사의식 때문

46) 『정관제집』 권14, 「寄濟州牧使李侯-墳-序」 “靜觀子少而有求道之志, 而病不得走四方尋師問友, 逮至強仕之年, 而又不得陳力於朝, 退而處於靈芝山中, 日把邵子皇極經世之書, 以圓圖觀天觀地觀歷世之泰否, 以方圖觀動物觀植物觀運用之物, 而其於帝王治亂興亡之數, 未嘗不三致意焉。覽古傷今, 思周道之盛, 或登山而詠榛苓之詩, 或臨水而發朝宗之歎, 俯仰感慨, 彷徨躑躅者有年矣.”

47) 『정관제집』 속집 권6, 「物格說」

이었다.

하지만 그가 직면했던 당대의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유세철의 상소, 현종의 벌금사, 임인관 사건 등을 모두 기수의 탓으로 돌리며, 이같은 세태를 그저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안으로 영남 유생이 올린 상소의 변고가 있고, 밖으로 청나라 사신이 와서 조사 하는 치욕이 있으니, 이는 천지의 기수가 그렇게 만든 듯합니다. 앞으로 세상일이 끝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부터 천지가 소멸할 때까지 陽이 점점 커지고 道가 점점 자라는 때를 다시 보지 못할 듯한데, 하늘이 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니 뭐라 말하겠습니까?⁴⁸⁾

이단상의 상수학은 기본적으로 天道와 人性的의 선함을 믿는 유학자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선택할 수 있었던 사상적 저항 방식 중 하나였다. 중화가 멸망하고 오랑캐의 천하에 살게 된 조선의 유학자들은 시비선악의 가치 판단을 포기하고 현실의 대세를 추수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 유유자적히는 은자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단상은 자신이 직면한 불합리한 현실을 천도의 운행 가운데 짐작하고 해석해 보려는 고민에서 상수학이라는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뇌의 시대적 의미는 그가 명칭교체의 현실을 원망하며 자주 언급했던 ‘술취한 하늘’이란 표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항가의 일맥이 남쪽 구석에 남아 있다는 편지를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려 합니다. 하늘이 이처럼 취했다라도 어찌 온 세상을 긴긴 밤으로 몰아간단 말입니까?⁴⁹⁾

48) 『정관제집』 권8, 「上宋同春」^⑩ “內而南疏之變, 外而北查之辱, 恐是天地間氣數使然, 不知前頭時事竟將如何? …… 竊恐自此以至成會之前, 更未見陽日進而道日長之時, 天實爲之, 謂之何哉, 謂之何哉?”

49) 『정관제집』 권11, 「答金久之」^⑪ “皇家一脈尙在南隅之示, 讀未終, 不覺涕箆箆欲下. 天雖此醉, 豈令宇宙都歸長夜耶?”

오랑캐를 사로잡아 涪溪의 절벽에 새기겠다는 말씀이 저로 하여금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저 푸른 하늘은 어찌 오래 취한 채 깨어나지 않는단 말입니까?⁵⁰⁾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을 점령한 시세의 흐름을 기수의 운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려는 이단상의 상수학은 천도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소옹의 상수학에서 數란 우주의 운행 원리이자 사물의 본질이었으며, 인간의 역사란 숫자의 총체였다.⁵¹⁾ 천도와 인간의 일치를 전제로 삼는 주자학의 기본 명제에서 본다면, 외재적 존재 법칙(數)을 극단화한 소옹의 상수학은 천도와 인간을 분리하고, 인간의 역사를 천지의 운행에 종속시킨 결과 인간의 자율성을 축소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세상의 운명이 예정된 기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인간이 하늘로부터 품부받았다는 인류와 의리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흐름을 기수의 운행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상수학풍이 주위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박세채는 그의 상수학이 玩物喪志의 폐단으로 흐를 것을 우려하며, ‘하늘의 운행에는 상세하지만 사람의 현실에는 소략하고, 도식에 급급하여 의리를 소홀하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를 고치기 위해 『논어』와 『맹자』, 『소학』과 『근사록』 등 전통적 공부 방법으로 돌아올 것을 충고했다.⁵²⁾ 이에 대해 이단상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학문하는 방도는 하나의 규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학자의 독서

50) 『정관재집』 별집 권2, 『答宋尤齋-壬寅』 “纓致涪崖之教，令人氣壯，彼蒼者天，亦豈久醉不醒耶?”

51) 『皇極經世書』 권2, “數字何也? 道之運也，理之會也，陰陽之度也，萬物之紀也。明于幽而驗于明，藏于微而顯于管，所以成變化而行鬼神者也。…… 時者，天也，事者，人也。時動而事起，天運而人從，猶形行而影會，聲發而響應歟。時行而不留，天運而不停，違之則害，亦之則凶，故聖人與天並行而不逆，與時俱逝而不違，是出自天祐之，吉無不利。”

52) 『南溪集』 권27, 『答李幼能-別紙』 “其詳於天而略於人，急於圖而緩於義，其弊又不可不察也。大抵太極之於易，只是發明其中綱領意思而已，非如洪範之相爲表理互成體用，則今日愚見，實在於茲。”; 『與李幼能』^③ “承玩太易，不任向風起櫓，第此亦似莊生所謂太早計者，恐不如先就論孟小近等書，次第看讀，其於質慤平易之中，實有無限要妙意味，益願高明加之意耳。”

순서는 이미 선유의 정론이 있어 진실로躐等해서는 안되지만, 門路를 다소 알아 갈림길에 미혹될 염려가 없다면 먼저 넓게 공부한 뒤 요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 뜻은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니,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보아야 하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궁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든 기력으로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학을) 이미 포기하여 뜻을 두지 않으며, 요약 공부에 곧장 나아가 浮泛한 근심을 면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주역』과 『춘추』 등의 책을 읽지 않으면 天人의 體用에 대한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없으니, 유학자가 되어 이를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책들을 읽은 뒤에 비로소 4서와 『근사록』·『소학』·『심경』 등의 책을 가지고 다시 체함 공부를 한다면, 마음에 얻은 바가 비로소 자득함이 될 것입니다. …… 근래 제 소견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이러한 공부의 효험인 듯합니다.⁵³⁾

『주역』과 『춘추』를 통해 우주와 인간, 본질과 현상을 관통하는 오묘한 이치를 깨우친 뒤 성리학의 기본 교재를 학습할 것을 제안한 위의 공부 방법은 대단히 특이하다. 이는 4서와 『소학』·『근사록』·『심경』 등의 반복 학습을 중시하던 기존의 요약적 공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른바 이단으로 규정된 책들까지 널리 섭렵하며 窮理格物의 방도로 삼았음을 본다면, 만년에 두드러진 박학풍이야말로 이단상의 학문 방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 하겠다.⁵⁴⁾

송시열 역시 이같은 학풍을 깊이 우려했다. 비록 이단상이 세상을 떠난 뒤

53) 『정관재집』 권12, 『與朴和叔能』② “爲學之道, 亦不必太拘一規. 初學所讀次第, 既有先儒定論, 固不可躐等, 而然稍知門路, 庶無他岐之惑之慮, 則亦不可不先博而後約. 生之初意, 只是如此, 以爲書不可不盡見, 物不可不盡格, 而今則已知病中精力, 決有所不及者, 固已放下, 不復留意, 必欲徑趨於約, 以免浮泛之患, 而第念若不讀易與春秋等書, 則無以達天人體用之妙, 爲儒而不知此, 亦可愧之甚. 讀此後, 始又以四書近小心經等書, 更加體驗功夫, 則所得於心者, 始可爲自得. …… 近來所見, 比前稍勝, 此恐是此效也.”

54) 『정관재집』 별집 권4, 「遺事-子喜朝」 “如異端諸書. 亦時涉覽曰, 此亦窮格之一道也. …… 其爲學, 以歲計之, 蓋不過十餘年矣.”; 『狀譜後序-門人林泳』 “其爲學也深, 以厭煩徑約爲戒, 必欲博觀衆理, 蓋自陰陽象數之微, 理氣性情之妙, 倫常物則之著, 節文儀章之繁, 與夫天下國家興亡理亂之故, 賢人君子出處進退之說, 莫不卽物而致思, 隨事而精義. …… 大抵先生之學, 雖無淵源所漸, 然亦未有端的授受之處, 而能自樹立, 直尋正路, 其收拾晚暮提接方來之功, 良有卓然者, 茲不亦偉哉.”

그 학문이 정자와 주자를 계승하고 道德性命에 뿌리를 두었음을 인정했지만,⁵⁵⁾ 상수학에 전념하던 이단상에게 마음 공부에 힘쓰라고 충고하는 한편, 그의 先博後約한 학풍이 전통적 공부 방법에서 벗어날 위험성을 늘 걱정했다.⁵⁶⁾ 이단상 역시 그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말년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했다.

이(상수학)는 학자가 몰라서 안 되지만 초학자의 급무는 아니니, 혹 許遠함에 힘쓰고 數學에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저 큰 틀만 대략 이해할 뿐 절대 거기에 전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存心向裏하고 切問近思하는 일에 노력을 더하고 날로 힘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⁷⁾

한편 이단상의 상수학이 한없이 확장되는 숫자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상대화했다는 점에서, 연암학파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도 사실이다.

1元(129,600년)의 수를 12限의 원대함에 비교하면, 1원이라는 긴 시간도 순간과 같다. 하늘의 높고 크을 가지고 땅의 넓고 두터움에 비교하면, 하늘 안에 둘러싸인 땅은 물이 가득 찬 동이에 떠있는 빈 그릇과 같다. 지금 이른바 중국이라는 것은 단지 빈 그릇에 떠 있는 한 조각 땅일 뿐이다. …… 지금 나는 빈 그릇 가운데 한 조각 땅 밖의 탄환처럼 작은 지역에서 北戎의 후예로 태어나서, 子長이 江淮를 유람했던 나이보다 배나 되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아직 탄환의 안에도 두루 미치지

55) 『정관재집』 卷首, 『靜觀齋集敍』(宋時烈) “其論著多本於道德性命之原, 而其求端用力處已治人之說, 必依於洛建緒餘.”

56) 『송자대전』 권52, 『答金起之-戊午十二月二十日-別紙』 “幼能先博後約之說, 固出於先賢, 然其博也, 亦有次序, 當先其易而後其難, 以至於無所不通, 然後真可謂博矣. 昔陳廉夫欲學易書, 朱子以爲莫若且讀詩書論孟之屬, 言近指遠而切於學者日用工夫也, 此言恐不可違.”; 권170, 『靜觀齋李公神道碑銘』 “嘗謂曰, 公晚從事於此學, 而先於易範象數用力, 盍思朱子所訓以敬補小學之闕者, 以爲田地乎? 公蹶然驚謝, 以爲頂門一針.”

57) 『정관재집』 권13, 『與李景源-河-趙靜春-仁壽-丙午』 “此在學者固不可不知, 而非初學急務, 深恐其或鶩虛遠, 或流數學之歸, 只宜略解其大槩, 而切勿專意於此. 唯以存心向裏切問近思, 爲加工日勉之地, 如何?”

못했고, 앞으로 인간 세상에 객으로 사는 것도 많아야 3,4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한순간 중 한순간이 되기에 부족하고, 돌아다니는 거리가 반걸음의 반걸음이 되기에 부족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⁵⁸⁾

숫자로 표상되는 시공간의 원대함 속에서 중국은 단지 虛器 중 한 조각 땅에 불과하고 사람의 생은 한순간에 불과한데, 중국 바깥 오랑캐의 땅에서 태어난 자신의 삶과 견문이 한걸음과 한순간에도 미치지 못함을 한탄한 위의 글은 광활한 우주 안에서 인간의 역할과 그 표준으로서 중화의 중심성을 회의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참신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단상의 상수학은 유학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명청교체라는 현실을 기수의 변화로써 해명하려는 방법론이었다는 점에서, 맹자의 一治一亂說에 입각하여 청 치하의 현실을 잠시의 혼란기로 규정하고 중화문명의 보전을 통해 治世의 회복을 염원했던 송시열의 세계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이르러 조·청 관계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단상의 博學風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가능성 중 일부가 김창협 등 후학들에 의해 낙론과 북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용·계발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4. 맺음말

이정구의 손자이자 이명환의 아들인 이단상은 17세기 초반 대표적인 명벌 출신으로, 그 역시 문장 실력과 과거를 통해 입신하여 효종의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가족사 때문인지 송시열 등 산림들과

58) 『정관재집』 권14, 『寄別呂北評希天-聖齊-序』 “以一元之數, 較十二限之遠, 則一元之久, 猶瞬息也. 以天之高大, 較地之廣厚, 則地於天包之內, 譬如大盆盛水, 以虛器浮其中, 而今所謂中國者, 特虛器中之一片地也. …… 然則今余生乎虛器中一片地之外, 北戎之裔彈丸之一小城, 年過子長之遊江淮之歲者倍之, 足跡猶未遍於彈丸之內, 而此後爲人世客者, 又遠不過三四十年, 則其生滅之久, 不足爲一瞬之一瞬, 其遊歷之遠, 不足爲跬步之跬步, 豈不哀哉, 豈不哀哉?”

뜻을 함께 하며 서인-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1665년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뒤로는 투철한 대명의리론을 견지하며, 중화와 이적이 전도된 현실을 해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수학에 전념했다. 이러한 이단상의 생애를 요약하자면 ‘관료에서 산림으로의 전향’이라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⁵⁹⁾

이단상의 이러한 행적과 관련하여, 17세기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을 지칭한 城市山林이라는 개념이 주목된다.⁶⁰⁾ 거기에 따르면, ‘도시형 산림’이라 풀이할 만한 그들은 서울 근교의 동질적 공간 속에서 당색을 초월한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자학 일변도의 학풍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는 博學 지향의 개방적 학풍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기심성론에 몰두하던 16세기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경세학과 상수학 등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새로웠고, 그러한 흐름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 낙론 혹은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상 집단 형성의 배경을 이루었다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이단상 또한 서울 인근에서 활동하며 박학의 학풍과 상수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성시산림의 일원이라 말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단상의 삶과 사상적 지향을 ‘16~17세기 주자학 일변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도시적 분위기의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초 이래 대대로 서울에서 벼슬살이 하던 喬木世家 출신의 이단상이 병자호란과 명청교체를 겪은 뒤 산림들과 정치·사상적 행보를 같이한 현상은 도시화와 실학으로 규정되어 온 성시산림의 정체성에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7세기 조선 사상계에서 상수학이 지닌 역사적 의미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간 이단상은 신희 및 김육·최명길·조성기·정제두 등과 함

59) 그렇다고 이단상이 산림으로 자처하지는 않았다. 1668년 무렵 아들 이희조가 이단상의 상소를 베껴 쓰며 말미에 청 연호를 적지 않았는데, 이를 알게 된 이단상은 잠시나마 관직에 몸담았던 자신이 과거를 통해 정식으로 출사하지 않은 산림들과 똑같이 청 연호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관료 출신으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관재집』 속집 권9, 「遺事續-子喜朝」 참조.

60) 城市山林의 개념과 범주에 관해서는 한영우, 「이수광의 學問과 思想」, 『한국문화』 1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참조.

계 상수학과의 일원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상수학은 김장생-송시열 계열 호서산림의 예학과 심성론 그리고 중화주의적 세계관과 대비되어 17세기 조선학계의 탈주자학적 진보성을 보여주는 면모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단상 상수학의 주된 고민이 병자호란과 명칭교체로 말미암은 세계관의 혼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데 있었고, 오히려 대명의리를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면모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화와 이적이 전도된 당시의 상황을 氣數의 탓으로 돌리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설명의 방도가 없었던 것은 송시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상수학자이면서 중화주의자였던 이단상의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신흠·최명길·정제두 등 상수학자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양명학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연 기수라는 외재적 법칙을 극대화했던 소옹의 상수학이 인간 내면의 도덕적 자율성을 절대시하는 양명학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었던지 혼란스럽다.

요컨대 이단상은 17세기 서울 지역 성시산림에서 출발하여 낙론과 북학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병자호란의 개인적 경험 때문에 서울 일원의 주류적 분위기에서 이탈하여 산림에 동조했던 특이한 경우일까? 이단상을 사소한 예외로 간주하기에는 적지 않은 관건적 문제가 걸려있기에, 16~18세기 조선 사상계의 흐름을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단상의 정치사상적 위상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燃藜室記述』
『靜觀齋集』(李端相), 『宋子大全』(宋時烈), 『六谷遺稿』(徐必遠), 『歸溪遺稿』(金佐明), 『南溪集』(朴世采), 『研
經齋全集』(成海應), 『皇極經世書』(邵雍)
- 유봉학, 『연암일파 복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2007.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 한영우, 『이수광의 學問과 思想』, 『한국문화』 1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2.
정만조, 『朝鮮 顯宗朝의 私義·公義 論爭』, 『한국학논총』 1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2.
우경섭, 『인전 鶴山書院과 李端相·李喜朝 父子』,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_____, 『명청교체기 조선에 표류한 漢人들: 1667년 林寅觀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8, 조선시
대사학회, 2019.
_____, 『靜觀齋 李端相의 생애와 사상 (1): 병자호란 경험과 禮論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靜觀齋李端相的生平与思想 (2)

- 以对明义理论和象数学为中心 -

禹景燮*

在以朱子学为中心的17世纪中叶朝鲜王朝思想界, 李端相先导了以象数学为标志的新学问, 他被看作为开启了传承为洛论和北学的西人内部的开放性、进步性学风的人物。可是, 自从走上仕途以来, 他同意宋时烈等根据朱子学主张对清朝复仇的山林的意见。1664年围绕着金万均的出任官职问题展开争论, 李端相支持宋时烈的对清朝复仇合理性的主张, 与徐必远、金佐明等朋友绝交, 退隐到杨洲东岗。接着, 1666年发生了国王向清使跪着谢罪并交罚银的事件, 1667年汉人林寅观等人漂流到济州岛, 朝鲜王朝把他们押解到清朝, 李端相写了海槎诗, 批判了丢弃对明朝义理的朝廷的行为。隐居于东岗之后, 李端相通过在元会运世的长久岁月中沿着气数的运行考察历史兴亡更替的邵雍的象数学, 诊断自身当下的明清交替的现实。这一点, 与宋时烈根据孟子的一治一乱说把清朝治理的当下现实认定为暂时的混乱期, 通过保存中华文明期许回复治世的中华主义世界观并无二致。

關鍵詞: 李端相, 对明义理论, 象数学, 宋时烈, 林寅观, 中华

논문투고일: 2021년 1월 14일 ||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1일

* 仁荷大學校 史學科 教授